

규모는 중소기업, 안전관리는 대기업

삼창기업(주)월성사업소



▲ 김상용 소장

국내여행기에 몸을 싣고 내려간 곳은 포항이다. 상공에서 내려다 본 포항 앞바다의 바람한점 없는 물결은 무늬목을 연상케 한다.

동해바다를 따라 오늘의 목적지인 월성원자력발전소를 가는 길에는 역사의 흔적을 쉽게 볼 수 있었다.

30년간 울산지역 향토기업으로 발전원자력, 수화력, 열병합발전소, 발전프렌트 부분의 전기, 전자, 계측제어분야 설비시공, 시운전 및 환경방사선 분야 설비 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삼창기업(주)이 오늘 찾은 곳이다.

현재 무재해 3배를 달성하고 월성원자력발전소내 하청업체 중 안전보건 우수업체로 3년연속 선정된 삼창기업(주)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시키기 위해 “안전 위해요소의 근원적 발굴”,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준수 생활화”에 적극적이다.

월성사업소의 소속근로자는 44명으로 규모는 적으나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건 활동은 대기업 수준이다.

“안전은 불안정한 요소가 없는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편안하고 좋은 것이다”라고 정의하는 박병욱 부장은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 사고같은 불행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역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안전은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고 행동
 한다면 지켜질 것입니다. 서두르면
 항상 사고가 따르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바쁘더라도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입니다.」라고 박병욱 부장이 한
 이야기는 불행한 재해를 미연
 에 방지하는 마음가짐일 것이다.

이중, 삼중의 안전

원자력발전소의 경상 및 계획예방
 정비, 전기·전자·계측·제어분야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삼창기업(주) 월성사업소에서는 소음, 고열, 전기감전의 위험과 고속작업에 의한 추락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특징인 방사능에 의한 피해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안전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모든 작업을 수행한다. 1인의 작업수행으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곳 발전소내 모든 지역은 위험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작업 특성상 언제, 어느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따라서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1인

은 관리감독자로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작업 수행에 앞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안전성을 검토한 후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한다.

선량관리는 개인이

원자력 발전소라 하면 핵에 의한 방사능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것이다. 이는 일반인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곳에도 핵심 관리부분이다.

따라서 모든 직원에게 선량계를 지급함으로써 선량(방사능에 노출 정도)관리는 개인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입직원부터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당시의 건강정도를 점검한다. 이 때 건강정도가 개인건강 기준이다. 매년 건강(신체)검진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직원에게는 선량계를 지급하지 않



는다. 결국 이곳에서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방사능의 노출 정도는 거리, 차폐 시간과 관계가 많다. 즉, 위험 지역과의 거리 유지와 방사능에 노출되는 시간은 작업자 자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중심의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무재해 목표 달성**

강압적인 주입식 안전관리가 아닌 상호 참여의 자율 안전을 추구하는 삼창기업(주)은 동호회를 강조한다.

특히, 축구 동호회 Synchro와 삼일회는 삼창기업(주) 월성사업소에서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이다.

동호회를 통해 형성된 동료 간의 우애는 무재해 현장을 만들어가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박병욱 부장은 말한다.

현장에서 안전지시를 할 경우 반감없이 수용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한 예이다.

이 밖에 이곳에서는 대민 지원 사업으로 정기적인 환경미화 운동과 함께 선량관리를 주민과 함께 하고 있고, 10년 전부터 실시한 불우 이웃 돕기 운동은 주민과 삼창기업(주)를 하나로 하고 있다.

삼창기업(주) 월성사업소에서는 2003년에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안전 활동을 전개하여 명실상부한 무재해 사업장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정에서 직장까지, 운전할 때에도 안전의 생활화에서 이룩하기 위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는 이곳은 진정으로 직원의 건강과 안정된 가정을 영위하



는 “안전” 월성사업소가 되길 기원한다.



〈최종덕 기자〉

